

'블루오션' 다도해 <26>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고흥편 - 시산도·시양도



시산도 전경. 고흥 김의 3분의1을 책임지며 연소득 200억원이 넘는 시산도는 250명의 주민 가운데 60세 미만인 45명이나 되는 '젊은 섬'이다.

김 채취해 '억대 부자' 돼 볼까

시산도

고흥 생산량의 1/3...가구당 연소득 2~3억원
60세미만 45명...외국인 20여명 '젊은 섬'
'부러울 것 없는' 주민들 바라는 건 연도교

시양도

새우·장어·낙지·감성돔...자연산 천지
해방 직후 일본인 피난 가려던 '증쟁동굴'
부스럼 특효 '찬물내린디' 폭포 등 자원 풍부

'약 섬'에서 피부병 고쳐볼까



시양도에는 유독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많다. 피부염증에 좋다는 '찬물내린디' 등은 그 효능을 본 주민들이 여러번 가보기를 권유했다.

시산도(詩山島)는 고흥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거금도에서 남동쪽으로 4km 지점에 있는데, 명칭으로만 보면 '인문학적 내음'이 물씬 풍기지만 선착장에 도착해보니 거중기와 트럭, 그물더미 등이 가득했다. 여느 남도의 섬과는 달리 30~40대가 눈에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켠에서 작업중이었다.

시산도는 인문학보다는 '김'의 섬이었던 것이다. 면적 3.65km², 해안선 길이는 24km의 자그만한 섬에서 고흥 김의 3분의1이 생산되고 있다. 125세대 250여명이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해 200억원 이상을 벌고 있다. 세대당 2억~3억원을 버니 외지에 나갔던 젊은이들도 되돌아오고 있다. 55세까지 가입하는 청년회 회원이 26명, 60세 미만을 포함하면 45명에 이른다. 현재 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만 20여 명이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은 초임이 110여만원으로, 능숙해지면 18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용준(76) 이장과 김경식(41) 어촌계장이 취재진을 반겼다. 김 이장은 "시산도의 김이 인기 있어 억대부자가 가능하다"며 "여자들이 소득이 높으니 섬에서 살고 있다"고 미소지었다. 그의 이야기 대부분은 '김'에서 시작해서 '김'으로 끝났다.

다른 섬보다 30~40대 부부가 많다보니 시산분교도 폐교를 면했다. 지난 1985년 신축 당시의 교장 공적비가 정문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교감 1명과 교직원 13명이 있었을 정도로 학교 규모가 컸다. 지금의 '변영'도 과거에 비하면 초라하다는 것이다.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가 많고 교회가 섬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현대식 건물로 자리하고 있다.

다시 선착장으로 나왔다. 김발을 가득 담은 4.5t 트럭이 주차돼 있고, 그 사이를 1t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으며, 천막 사이사이로 김발을 다듬는 외국인 근로자와 섬 주민들이 보였다.

선착장에는 시산도의 역사와 섬의 자원에 대해 설명하는 표지 석도 있다. 원래 시산도의 이름은 330년 이상 시산(矢山)이었는데,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일제는 명칭을 시산(矢山)으로 바꿨다고 한다. 이후 1995년 12월 1일 지금의 시산(詩山)으로 변경됐다. 동해일출, 서해낙조는 물론 대나무숲의 밤비, 가을달과 이슬 등 '시산 8경'이 표지석 뒤에 적혀있었다. 그 옆에는 옛 선착장 주변을 매립해 조성된 용지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1815년 주민들이 직접 쌓은 선착장은 지난 2000년 국가여행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조성됐다. 과거 선착장 자리는 매립돼 경로당, 면사무소 분소도 들어섰다. 용지(龍池)공원은 남해옹왕이 시산도를 길한 땅이라고 머물러 있었다는 전설에서 명칭을 지은 곳이다. 잔디가 곱게 깔려 있어 도시 어느 공원보다도 잘 정돈돼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해수욕장이나 봉화산 등 자연자원들도 찾는 외지인이 거의 없어 옛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어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섬의 주민들도 '민원'이 없다. '연도교' 설치가 그것이다. 북동에서 하루 1차례 왕복하는 여객선이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또 북동으로 '유학'을 가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이장은 거금도 끝에서 직선거리로 1.8km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주민들의 배운을 뒤로 하고 시양도로 향했다. 우주센터가 있는 나로도 옆에 자리한 이 섬은 면적 0.78km²에, 해안선길이 4km가 고작이지만 다양한 자원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장을 맡고 있는 김성우(73)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 지난 2000년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새끼김'이라는 207m짜리 산의 정상에서 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아름다워 내려오기 싫다는 말과 함께



시산도에는 고된 김 작업을 돕는 외국인 근로자 20여명도 거주하고 있다.



시산도 표지석에서 함께 한 김용준(76·왼쪽) 이장과 김경식(41) 어촌계장.

시양도 토박이 고영식(68) 할아버지를 소개해줬다. 작은 섬이지만 과거 130호까지 살았고, 지금은 70호 1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새우, 장어, 낙지, 감성돔 등이 많이 잡혀 나로도 횡집의 자연산 생선은 모두 시양도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500ha에 이르는 반지라 밭도 있다.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없어 민박은 하지만 최근 외지에서 온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와 무질서한 행위가 심해져 주민들이 최근 낚시터를 봉쇄하기도 했다. 고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시양도가 간직하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찬물내린디'라는 작은 폭포는 주민들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했다. 부스럼, 종기 등 피부병에 특효라는 '찬물내린디'는 작은 돌 틈 사이의 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곳이다. 길이 끊겨 썰물 때만 갈 수 있다. 이외에도 '용발자국', 떡시루 같이 생긴 '딱동구리바위',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피난을 갔으나 배이 살고 있어 못들어갔다는 '증쟁동굴' 등 다양한 자원들이 작은 섬 곳곳에 숨겨져 있다.

섬의 일상이 친근했다. 더운 날씨에 대문 앞에 자리를 깔고 취재자에게 인사를 건넨 2명의 할머니는 '찬물내린디'가 있는 곳의 방향을 가리키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는데, 선착장 앞 정자에서 주민들이 모여 옥수수과 감자를 찌서 취재자에게 권했다. 그 어느 곳에서 먹어본 것보다 좋은 맛이였다. 함께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을 뒤로 북동향으로 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익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스타이بل 장식, 페백실 대여, 혼용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